

에이피알, 유럽·중동 유통망 확대... 'K-뷰티' 위상 강화

스페인 등 계약에 유럽 진출 확대
두바이 유통업체와 UAE 총판 계약
다양한 판로 개척 지속 성장 목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해외 시장 다각화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이피알은 최근 서유럽 유통을 진행할 스페인, 북유럽 유통을 진행할 핀란드 등 현지 유통 업체들과 계약을 마무리해 '메디큐브' 유럽 판매를 확대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각 업체들이 여러 국가에서 보유 중인 자체 영업망 내 에이피알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의 판매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스페인 업체의 경우, 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통칭 서유럽 지역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과거 대항해 시대의 영향으로 중남미 대륙에 위치한



지난 6월 13~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아세안 방콕 2024'에서 에이피알이 부스를 마련해 전 세계 뷰티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했다. /에이피알

스페인어권 지역에도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에이피알은 이번 기회에 서유럽 외 스페인어권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란드 업체는 본국을 비롯해 스웨

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문화권 국가들과 발트 3국의 일원인 에스토니아에 매장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에이피알은 해당 북유럽 국가에서는 '친환경', '인체 친화' 등을 강

조하는 메디큐브 제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해당 국가 소비자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에이피알은 지난 6월에는 아세안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뒀다. 기존 진출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태국에서 총판 계약 후 약 6개월 만에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최근 두바이 소재 글로벌 유통업체와 아랍에미리트(UAE) 총판 계약을 맺어 중동 지역 또한 정조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피알은 지금까지 전체 매출의 약 40%를 해외에서 기록해 왔다. 지난 2023년 기준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액은 2000억원을 넘어선다.

또 올해 1분기 기준, 에이피알의 해외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661억원으로 이는 1분기 전체 매출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매출은 약 2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4% 커졌다. 미국 다음으로 큰 성장세를 보인 해외 지역 매출은 138억원에 이른다. 해당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5% 커진 규모로,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글로벌 판로 개척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직접 진출, 총판 및 대리점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판로를 넓혀 K뷰티테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K뷰티의 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에이피알은 상장 당시에도 장기적인 글로벌 성장 우상향을 위해 추가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샐러드 식자재 매출 32% ↑

빨라진 여름에 다이어트족 늘어
샐러리아에 소스 등 180여개 공급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에 식단 관리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CJ프레시웨이의 샐러드 및 샌드위치 전문점 대상 식자재 매출도 덩달아 뛰었다.

CJ프레시웨이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가운데, 올해 '입하(5월5일)'를 지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8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전국 샐러드 및 샌드위치 매장 수는 280여 곳에 달한다. CJ프레시웨이는 늘어나는 주문량을 대비해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과 신선도 유지에 힘쓰고 있다. 상품 전문 MD 조직이 유럽 채소, 토핑용 축육 등 다양한 식자재를 소싱하는 것은 물론 샐러드, 샌드위치의 주재료인 훈제 연어(칠레산),



CJ프레시웨이 외식 고객사 '샐러리아' 메뉴. /CJ프레시웨이

새우(페루산) 등은 선제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무소에서 직수입한다.

체계적인 콜드체인 시스템과 전국 물류망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 배송도 책임진다. 상온·냉장·냉동 상품별 입고를 거쳐 검품 및 검수, 자동

온도 조정 기반 재고 관리, 배송 차량 온도 점검, 실시간 배송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7개의 광역 물류센터, 19개의 지역 물류센터를 갖춰 전국 단위 배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성수기를 맞아 전문점 매출 향상을 위한 신메뉴 개발도 지원한다. CJ프레시웨이 셰프, R&D 전문가 등이 외식 트렌드, 조리 편의성을 고려한 레시피를 만들고, 자체 제조 인프라를 통해 원팩 제품도 생산한다.

전국 가맹점 60여 곳을 운영하는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리아'는 지난해 CJ프레시웨이와 식자재 계약을 맺었다. CJ프레시웨이는 야채, 축육, 수산물, 소스 등 식자재 180여 가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샐러리아' 맞춤형 샐러드 야채 믹스 상품 개발도 논의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 슬림 파우치 타입 '옷걸이형 제습제'

흡백신, 한번에 400g 습기 제거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습도가 높은 여름과 장마철,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해 주는 제품을 선보인다.

애경산업은 홈 위생케어 브랜드 '홈백신'에서 '옷걸이형 제습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홈백신 '옷걸이형 제습제'는 습기 제거가 필요한 공간에 간편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옷걸이 형태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좁은 옷장, 물건이 많은 다용도실 등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홈백신 '옷걸이형 제습제'는 넓은 면적의 흡습지와 비드 유형의 고순도 염화칼슘을 사용해 공기 중 수분과 맞닿는 면적을 넓힘으로써 효과적인 제습 기능을 한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신제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400g의



홈백신 '옷걸이형 제습제' /애경산업

대용량으로 제작됐다. 또 투명 디자인을 통해 흡습량과 교체 주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백신 '옷걸이형 제습제'는 흡습한 물을 간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절취선이 표시됐고, 플라스틱 옷걸이 부분은 쉽게 분리돼 분리배출 편의성까지 갖췄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엠에스

올해 전문무역상사 지정

GC녹십자엠에스가 헬스케어 산업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 5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무역상사 제도'에서 '2024년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통해 매년 수출 실적과 중견·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한다. 올해는 167개 기업이 신규 지정된 가운데, GC녹십자엠에스는 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청하 기자

오뚜기 '순후추·카레' 활용한 만두 선풍

순후추 교자·카레 군만두 2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오뚜기가 대표 제품인 '순후추'와 '오뚜기 카레'를 활용한 냉동만두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순후추 교자'와 '카레 군만두' 2종으로, '순후추' 출시 50주년과 '오뚜기 카레' 출시 55주년을 기념해 각 제품의 IP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순후추 교자'는 만두소에 순후추가 콕콕 박혀 있는 교자 형태의 만두로, 알싸하고 매콤한 순후추 풍미를 즐길 수 있다. 국내산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져 육즙과 채즙의 조화를 맞볼

수 있으며,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 찜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조리 가능하다.

함께 출시한 삼각형 모양의 '카레 군만두'는 만두피에 쌀가루와 강황을 첨가해 바삭한 식감과 노란 빛깔을 살렸다. 만두소에는 고기와 양파를 듬뿍 넣었으며, '오뚜기 카레 약간 매운맛'을 활용해 익숙한 카레 풍미를 구현했다. 18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약 8분간 데우면 노릇하고 바삭한 군만두가 완성된다.

기존 '순후추'와 '오뚜기 카레'의 디자인을 적용한 패키지도 눈에 띈다.

/신원선 기자

동화약품, 입술염 치료제 '큐립연고' 출시

알란토인 등 5가지 복합성분 함유

동화약품이 갈라진 입술, 짓무른 입술 등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을 선보인다. 동화약품은 국내 유일 연고 제형 입술염 치료제 '큐립연고'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큐립연고'는 에녹솔론, 알란토인, 피리독신염산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염화세틸피리디늄수화물 등 5가지 복합성분을 함유해 입술염에 대한 효능

을 갖췄다. 특히 입술 갈라짐, 입술 짓무름, 구순염, 구각염 등 유병 기간이 길고 재발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하다는 것이 동화약품 측의 설명이다. '큐립연고'는 반투명 연고 제형으로, 립밤처럼 수시로 사용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상 1일 수회 적당량을 질한 부위에 바르면 된다.

또 '큐립연고'에는 사선 용기와 프레스 로즈향이 적용돼 위생적이면서도 산뜻한 사용감을 제공한다는 것이 동화약품 측의 설명이다.



큐립연고

/동화약품

/이청하 기자